

직구플랫폼 다음 타깃 ‘외식업’… 중국 茶 브랜드 한국 상륙

Z세대 상권 중심 中 밀크티 확산
포화 내수 벗어나 韓서 시험 확대
위생·품질 강조해 신뢰확보 시도
中 외식 브랜드 국내 진입 본격화
시장 변화 속 자영업 경쟁 심화 전망

중국 브랜드의 한국 공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직구 플랫폼(C-커머스)이 국내 소비 지형을 흔들어 놓은 데 이어 이제는음료 프랜차이즈까지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중국 밀크티·차(Tea) 브랜드가 잇달아 매장을 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명동·건대·홍대 등 Z세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미 중국 브랜드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중국 밀크티 강자인 ‘차백도’는 지난해 강남에 첫 해외 매장을 연 뒤 현재 국내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까지 영업 반경을 넓혔다. 내년까지 50개 점 확대가 목표다.

‘헤이티(HEYTEA)’는 2023년 3월 압구정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건대·명동·홍대·가로수길 등 핵심 상권에서 총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우는 만큼 일부 매장은 청결



차백도 홈페이지 캡처.

상태를 매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신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공식 SNS를 개설하며 진출을 예고한 ‘패왕차희(CHAGEE)’도 최근 한국 법인 ‘차치코리아’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초기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대입구에 문을 연 ‘아운티제니(AUNTEA JENNY)’도 중국 내에서 유명한 차 브랜드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브랜드로 중국 내 점유율 4위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임시 오픈을 통해 반

응을 테스트했고 11월 정식 오픈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중국 브랜드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의 극심한 포화 때문이다. 차백도(약 8400개), 차희(약 6800개), 헤이티(약 4000개) 등 주요 브랜드의 중국 내 매장 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데다 그밖에도 많은 브랜드가 경쟁에 뛰어들어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소비자 반응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확장을 위한 ‘실험 무대’로 꼽힌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외식업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로봇청소기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보락’이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식품·음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경계심이 높아 브랜드들이 ‘청결·품질관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과거 중국산 식품 위생 논란을 떠올리며 여전히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지만, 위생 관리와 품질 인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 규제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확장 속도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C-커머스가 단기간에 시장을 뒤흔든 것처럼 중국 프랜차이즈 유입이 본격화하면 외식 산업 판도도 바뀔 수 있다”며 “식품 안전 검증 강화와 함께 국내 자영업자 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조아제약

고보습 크림 ‘손바렌’

각질·건조피부 완화 기대

조아제약이 건조성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손바렌크림’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손바렌크림은 우레아 성분을 함유해 진행성 지장각피증(주부습진의 건조형), 손·발바닥 각피증, 어린선, 노인성 건피증, 모공성 태선, 아토피피부 등 다양한 건조성 피부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우레아는 천연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으로 피부 각질층 내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표피 각질을 용해해 피부 보습 및 각질 제거 효과를 갖췄다.

이번 신제품은 수분 보유력이 높고 끈적임이 적은 크림 제형을 처방한 것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도 특징이다. 튜브형으로 제작돼 휴대와 보관도 쉽다.

조아제약관계자는 “손바렌크림은 스테로이드, 색소, 향료를 함유하지 않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K-제약바이오, 제조역량 강화위해 첨단기술 혁신 필요”

제약바이오협회, 제29호 정책보고서 자동화·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과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와 고도화,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연속제조 공정,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적극 도입 등에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창립 80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조 혁신’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룬 제29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특별기고를 통해 박영준 의약품 제조혁신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통적 배치 생산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활용, 빅 데이터 구축, 로봇 기술 개발 등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필수 성장 요소로 꼽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의 정윤 PL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제조·품질 혁신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협회 회원사 가운데 45개 기업의 61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사적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장 운영의 디지털 인프라는 상당 수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들은 높은 설비 투자비용, 각종 시스템 간 연계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규제 불명확성 등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는 단기적으로는 공장 자동화를 향상에 대한 투자 의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속제조 공정 및 의약품 품질 고도화(QbD)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구조 특성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 PL은 “제조·품질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중장기적 방향성과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고 제조·품질 혁신 투자활동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전문 인력을 체계

적으로 양성하는 등 민관 협력 및 우수 사례를 지속 창출해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종근당 천안공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이연제약 충주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사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 실행 시스템(MES) 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조혁신 미래 방안과 관련해서는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소진언 연구개발 부문장의 제약산업의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약품 제조 혁신 전략, 이삼수 하나제약 사장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품질분야 혁신을 위한 제언 등이 다뤄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반의약품 ‘손바렌크림’

/조아제약

한미약품, ‘비만 신약’ 식약처 신속심사 선정

최대 30% 체중감량 효과 입증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만 신약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신속 심사’ 제도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혁신 국산 신약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뒀 심사 일정을 일반 심사 대비 약 25%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발매는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대사 개선에 효능을 갖췄다. 지난 10월 공개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데이터에서는 최대 30%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됐다.

해당 임상은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특히 체질량지수(BMI) 30kg/㎡ 미만의 여성 환자에서 평균 12.20%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고 최대 체중 감소는 30.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슈뢰더 前 독일총리 부부, 콜마그룹 방문

콜마홀딩스, 세종공장서 글로벌 협력

콜마홀딩스는 지난 2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 부부,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 등이 한국콜마·콜마비엔에이치 세종공장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종공장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총리와 부인인 김소연 슈뢰더-김 비영리재단 이사장은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함께 공장을 견학하며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알 호사니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최고 책임자, 메이드 알 함마디 에미리트-한국 친선협회(EKFS) 회장,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HITI) 대표도 동행해 콜마

그룹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 역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운동한 회장은 슈뢰더 전(前) 총리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김소연 이사장은 지난 2014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월드클래스 300기업 협회장인 윤 회장과 협력했다. 김 이사장은 윤 회장이 독일 아헨공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독일 내 연구기관 및 기업과 교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청하 기자

써브웨이

‘랍스터 접시’ 카드뮴 검출

제품군 안전기준 재정비

써브웨이는 최근 사은품으로 지급된 ‘랍스터 접시’ 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써브웨이는 “이번 사건으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즉시 증정 중단 및 전량 회수가 결정되었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에게도 빠르게 회수 안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써브웨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품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은품을 포함한 전 제품군 품질·안전 기준 재정비, 제조 공정 및 협력업체 관리 강화, 정기 샘플링 검사 확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 강화, 사전 제품 검증 프로세스 고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원선 기자